

## 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 연간 자살자 수 14,872명, 자살률 전년 대비 6.6%(1.8명)↑ -
- 자살시도자 긴급 개입 강화, 범정부적 역량 결집 등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9월 12일 발표)」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자살률(10만 명당) : '11**31.7** → '1228.1 → '1328.5 → '1427.3 → '1526.5 → '1625.6 → '1724.3 → '1826.6 → '1926.9 → '2025.7 → '2126.0 → '2225.2 → '2327.3 → '24**29.1명**

9월 25일(목)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6.4%)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1.8명) 증가하였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하고 OECD 기준 인구를 활용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21.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14.7%), 50대(12.2%)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한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 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 (현행) 1)경찰·소방의 정보연계 또는 2)응급실의 요청 시(당사자 동의 전제)에만 개입 가능  
(개선) 「자살예방법」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지원

\*\* 취약계층 지원기관의 상담과정에서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 →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연계해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원스톱 복합고층 해결 체계 마련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붙임> 1. 2024년 자살사망통계

2.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자살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정우 (044-202-3890)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2-3892)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률 29.1명, 전년 대비 1.8명(6.6%) 증가

- 자살 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 대비 894명(6.4%) 증가함
-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1.8명(6.6%) 증가함
- 성별로 전년대비 자살률은 남자(9.1%), 여자(1.0%) 모두 증가함
- 연령별로 30대(14.9%), 40대(14.7%), 50대(12.2%)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80세 이상(-10.3%), 70대(-8.7%) 순으로 감소함
- 자살은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원인 1위이고, 50대에서 2위임[그림 4] 참조

[표 12] 성·연령별 자살자 수 및 자살률 추이,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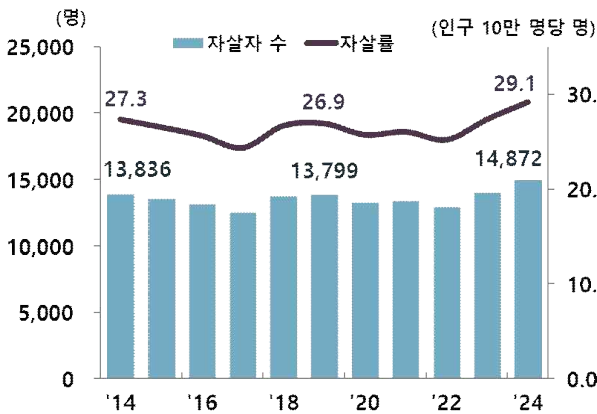
(단위: 명, 인구 10만 명당 명, %)

		자살자 수	자살률									
			전체*	1-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 이상
남녀 전체	2014년	13,836	27.3	0.0	4.5	17.8	27.9	32.4	36.4	37.5	57.6	78.6
	2023년	13,978	27.3	-	7.9	22.2	26.4	31.6	32.5	30.7	39.0	59.4
	<b>2024년</b>	<b>14,872</b>	<b>29.1</b>	<b>-</b>	<b>8.0</b>	<b>22.5</b>	<b>30.4</b>	<b>36.2</b>	<b>36.5</b>	<b>31.9</b>	<b>35.6</b>	<b>53.3</b>
	'23년 증 감	894	1.8	-	0.1	0.3	3.9	4.7	4.0	1.2	-3.4	-6.1
	대비 증감률	6.4	6.6	-	1.4	1.6	14.9	14.7	12.2	3.9	-8.7	-10.3
남	2014년	9,736	38.4	0.1	5.5	21.8	36.6	46.6	55.2	59.8	92.3	143.4
	2023년	9,747	38.3	-	7.1	26.4	33.7	43.0	47.5	46.6	63.9	115.8
	<b>2024년</b>	<b>10,605</b>	<b>41.8</b>	<b>-</b>	<b>7.4</b>	<b>26.4</b>	<b>39.5</b>	<b>51.1</b>	<b>54.9</b>	<b>49.5</b>	<b>57.0</b>	<b>107.7</b>
	'23년 증 감	858	3.5	-	0.3	0.0	5.9	8.1	7.4	2.9	-7.0	-8.1
	대비 증감률	8.8	9.1	-	4.0	0.0	17.5	18.8	15.7	6.1	-10.9	-7.0
여	2014년	4,100	16.1	0.0	3.4	13.4	18.9	17.7	17.4	16.5	32.1	51.1
	2023년	4,231	16.5	-	8.8	17.6	18.6	19.8	17.3	15.3	18.0	29.6
	<b>2024년</b>	<b>4,267</b>	<b>16.6</b>	<b>-</b>	<b>8.7</b>	<b>18.3</b>	<b>20.4</b>	<b>20.9</b>	<b>17.8</b>	<b>14.9</b>	<b>17.5</b>	<b>24.1</b>
	'23년 증 감	36	0.2	-	-0.1	0.7	1.8	1.1	0.5	-0.5	-0.6	-5.5
	대비 증감률	0.9	1.0	-	-0.8	4.2	9.5	5.5	2.8	-3.1	-3.2	-18.5
성 비 (남/여)	2014년	2.4	2.4	-	1.6	1.6	1.9	2.6	3.2	3.6	2.9	2.8
	2023년	2.3	2.3	-	0.8	1.5	1.8	2.2	2.7	3.0	3.5	3.9
	<b>2024년</b>	<b>2.5</b>	<b>2.5</b>	<b>-</b>	<b>0.8</b>	<b>1.4</b>	<b>1.9</b>	<b>2.5</b>	<b>3.1</b>	<b>3.3</b>	<b>3.3</b>	<b>4.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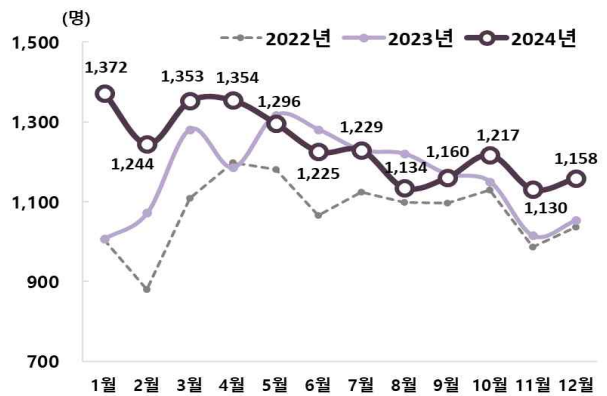
\* 연령미상 포함

- 연령별 자살률은 10대에서는 여자가, 20대 이상에서는 남자가 높음
- 자살률 성비는 남자(41.8명)가 여자(16.6명)의 2.5배이며, 80세 이상이 4.5배로 가장 큼
- 월별로는 1월(36.2%), 2월(22.0%)에 증가하고, 8월(-7.0%), 6월(-4.3%)에 감소 - 1일 평균 자살 사망자 수는 40.6명임

[그림 9] 자살자 수 및 자살률, 2014-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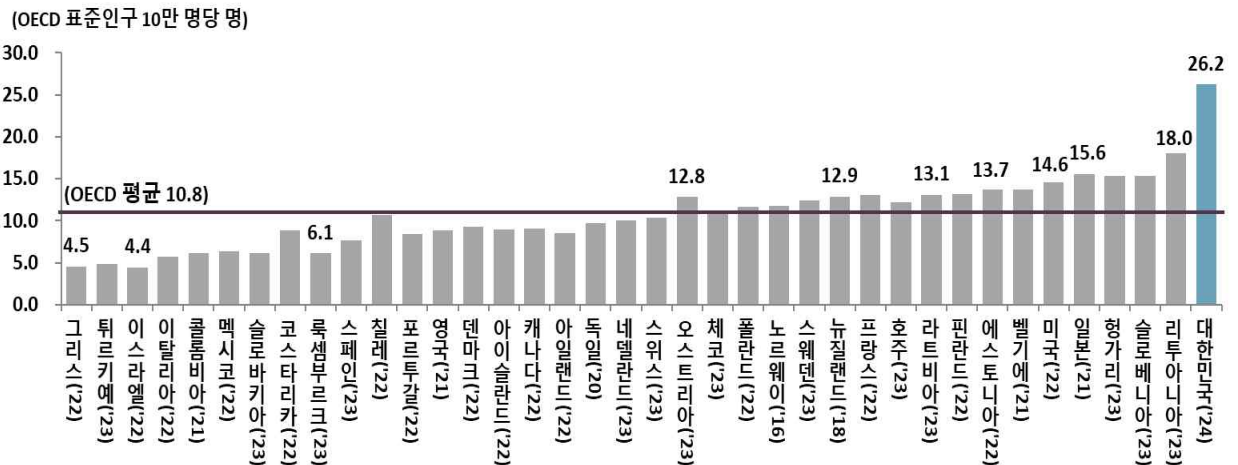
[그림 10] 월별 자살자 수, 2022-2024



-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평균 10.8명에 비해, 한국은 26.2명\*\*('24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임

\* 국제 비교를 위하여 OECD 기준인구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화 사망률  
 \*\* OECD에는 2023년까지 공표되어 OECD 표준인구로 자체 계산한 수치임

[그림 11] OECD 국가 연령표준화 자살률 비교



\* 자료: OECD.STAT, Health Status Data(2025. 9. 추출), 우리나라 최근 자료는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수치임  
 \* OECD 평균은 자료 이용이 가능한 38개 국가의 가장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 **추진 배경**

- 심각한 자살 문제\* 대응 위한 특단의 조치 시급, 자살 예방·대응 전략의 획기적 전환과 전 사회적 인식개선이 필요한 상황

\* ▲ 일평균 40.6명 자살, ▲ 10만명당 29.1명 자살, OECD 자살률 1위 (24)

→ 근본적 자살예방 위한 범부처 차원의 위기요인 해소, 전 사회적 인식 개선, AI 활용 고위험군 발굴 등 정책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 추진

□ **주요 내용**

**1 고위험군 집중 대응**

-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개입 강화\*, 응급실 위기대응센터 확대(92개소 → 98개소), 치료비·심리검사 지원 확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전수)

\* (현행) 1)경찰·소방의 정보연계 또는 2)응급실의 요청 시(당사자 동의 전제)에만 개입 가능 (개선) 「자살예방법」 개정해 응급실 정보를 자동연계하고, 정보입수 즉시 긴급출동·지원

- **(유족)** 원스톱 지원\* 확대(12개 → 17개 시·도), 자조모임 운영 지원

\* 유족 대상 심리상담, 임시주거, 특수청소, 법률지원, 학자금지원 등 지원 제도

**2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발굴연계)** 서민금융지원센터<sup>금융위</sup>·범죄피해자지원센터<sup>법무부</sup>·Wee센터<sup>교육부</sup> 등 다양한 기관의 상담과정에서 정신 고위험군 발굴과 지원 연계

\* 정신건강 非전문가도 손쉽게 발굴·연계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및 정보시스템 마련

- **(원스톱 복합고충 해결)** 자살예방센터에서 치료·상담 등 서비스 제공, 생활고·가정불화 등 미충족 고충은 유관기관 연계 통해 해결

\* (프로세스 예시) 구직 위해 고용복지센터 방문 → 자살 고위험으로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 상담과정에서 가정 내 문제 발견 → 가족센터 전문 지원 연계

- **(긴급 대응)** 소방·경찰·응급실\* → 자살예방센터 실시간 정보연계 추진

\* (소방·경찰) 현재는 전화·수기 등으로 정보연계 중이나, 사건발생↔연계 간 상당 시차 발생 (응급실) 자살예방센터의 요청이 있을 시 수기·전화 등으로 정보 제공 중

### 3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활성화

- **(금융)** 소상공인·개인의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소각, 불법추심 피해 방지 위한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
- **(생활고)** 긴급 생활안정 지원('25. 4인가구 187만원), 생계급여 인상\* 등  
\* '25년 195.1만원 → '26년 207.8만원(+12.7만원, 4인가구 기준)
- **(범죄·재난피해)**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 유발 범죄 대상 엄정 수사 및 몰수·추징, 재난피해자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
- **(대인관계)** △학폭 예방 위한 관계회복 숙려기간\* 도입, △직장 내 갑질 예방 교육·컨설팅 강화, △가족문제 해결 위한 상담·사례관리 지원 등  
\* 초 1·2 대상으로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 학교폭력 심의 이전 관계 회복 지원

### 4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 **(전달체계 강화)** △지자체별 '자살예방관' 지정 통한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 부여, △본청 전담조직·인력 보강, △자살예방인력 확충\* 등  
\* 자살예방센터 인력 : 現 2.6명 → '26년 5명
- **(지역사회 발굴)**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 위해 시군구·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자살예방분과 설치 및 생명지킴이\*\* 활성화  
\* 지자체 공무원, 관련 기관 종사자, 이·통장 등으로 구성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의료·복지기관 종사자, 종교단체·약국·상인회 등으로 구성

### 5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 **(AI 활용)** AI 기반 △실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분석 및 고위험군 발굴, △자살 유발 콘텐츠 24시간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요청 등
- **(캠페인)** 국가·사회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을 위한 전 사회적 '생명 존중 캠페인' 추진(2차 추경 +11.3억원)
- **(거버넌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 사무국 역할로서 범부처 차원의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 설치